

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

- 대통령기록관을 사례로 -

Tour Program in Archives: Case Study for the Presidential Archives

이혜원 (Hyewon Lee)**

이해영 (Hae-young Rieh)***

목 차

1. 서론	3.2 국내 관련 기관의 사례
1.1 연구 배경과 목적	4. 대통령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 방안
1.2 선행연구	4.1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현황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2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사례와 한계
2. 견학의 역할과 유형	4.3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국내의 견학 프로그램의 사례	5. 결론
3.1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사례	

<초 록>

기록관은 다양한 확장서비스 방법들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견학은 유용한 서비스 방법이나, 기록관 견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기록관 견학에 대해 연구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제안해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대통령기록관 네 곳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유사기관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김대중 도서관, 외교부 외교사료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견학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곧 세종특별시에 단독청사로 이전할 대통령기록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견학프로그램 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록관 견학, 견학프로그램, 대통령기록관, 미국 대통령기록관

<ABSTRACT>

Archives should promote services to users using various outreach service methods. Although the archives' tour program is one of the effective means of services, there has been few studies on the archival tour program. This study investigated archival tour programs and tried to suggest a desirable tour program, with the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as a case. For this study, four U.S. Presidential Libraries' tour program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lso, tour programs offered in similar organizations in Korea, such as Kim Daejung Library,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analyzed. Current tour programs offered by the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were also analyzed and some limitation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which will be moved to independent building in Sejong City soon, desirable direction to organize tour programs for various user groups were suggested.

Keywords: archival tour, tour program, Presidential Archives, U.S. Presidential Libraries

* 본 논문은 이혜원의 석사학위 논문 『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연구-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hwnhy@hanmail.net)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hyrieh@mj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7월 26일 ■ 초심사일: 2015년 8월 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31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19-245,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3.219>>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 생활 속에는 기록이 항상 곁에 있다. 가계부나 육아일기, 가족 앨범, 성적증명서나 졸업장 등, 둘러보면 기록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조직에서 업무가 진행되면서 기록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업무과정에서도 대통령 기록이 생산된다. 이렇게 기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기록이라는 것은 생소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거나, 그 개념이나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록관¹⁾은 사람들에게 기록과 기록관에 대한 가치를 알려야 하며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

기록관을 홍보하고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시, 출판, 콘텐츠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이나 리플렛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기록을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견학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록관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다른 문화기관에 비하여 낯설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기록관 견학을 통해 기록을 직접 보고, 듣고, 활용에 대한 체험을 통해 기록관이 어떠한 곳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기록의 중요성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옛 중국 한서(漢書)의 조충국의 이야기 중

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백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정종기, 2012a). 견학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고,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람 대상이나 일하는 과정 또는 사건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며, 대상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본인이 속한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기록관의 홍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견학은 실제 많은 기록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견학은 최근에 디지털 전시와 사이버 기록관 견학이 결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고,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기록관은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실무자나 전문가, 학자들에게도 기록관 관리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매주 10회씩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견학 프로그램 자체는 주로 시설을

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하나, 본 논문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을 편의 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 등을 포괄하여 기록관으로 통칭함.

둘러보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 견학 프로그램만으로는 원래의 의도처럼 홍보 면에서 크게 이용자들에게 각인되지 못할 수 있다. 몇 곳의 기록관에서는 견학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되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은 아직 많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기관이며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인 형편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잘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이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활성화되고, 또 좀 더 많은 기록관들에서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기록과 기록관 자체의 홍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기록관의 역할이 확장될 것이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최근 다양한 서비스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학 프로그램의 평가나 바람직한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으며, 일부 논문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견학 프로그램 관한 연구는 주로 박물관학 분야에서 교육프로그램과 전시 큐레이터에 관해 많이 다루어 왔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몇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박물관학 분야의 연구는 본 연구에 참고는 되겠으나 기록과 기록관 고유의 특성을 살린 견학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여, 기록관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참고할 자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

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소장 기록의 특성이 잠재적 이용자의 관심을 끌만한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분석해보고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과 국내 유사 기관의 견학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단순히 대통령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혹은 견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록관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기록관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서비스의 종류별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기록관의 견학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는 조민지(2006)가 한국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시를 제시하였고, 이영숙(2007)은 새로운 이용자를 창출하기 위한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확대와 기록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용자 프로그램에 관해서 CRM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유지선(2008)은 기업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CRM을 기록관에 도입하여 이용자의 세분화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최상기(2009)는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와 6단계의 아웃리

치 절차를 제시하였다.

Sinclair(2012)는 웹 2.0을 통해 접근점이 어려운 기록관을 가깝게 해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활발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석현 외(2013)는 기록관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전시를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할 것과 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고찰하였으며, 아카이브 전시에 대한 의의로 새로운 콘텐츠가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으로 지역사회와 기관을 홍보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시는 견학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제공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박물관 견학과 관련하여, 김정은(2012)은 박물관에서 관람객의 유형에 맞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박물관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관람객들에게 기대를 가지게 하며, 좋은 기억을 남게 하여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설양환, 임병로(2001)는 박물관이 어린이 교육에 도우며 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강조하고, 미국의 어린이 박물관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장 견학 오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노력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Oling & Mach(2002)는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견학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이용자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이드 투어, 셀프 견학, 가상 견학 등의 포맷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견학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보다 여전히 전문가가 같이 동행하는 가이드 투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록관과 유사한 성격의 도서관의 견학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정중기(2012a)가 도서관 견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적 토대를 재해석하여 도서관 견학의 효용성과 교육적 의의에 주목하였다. 도서관 견학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고, 하이브리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의 적용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견학이 예비 사서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예비사서들에게 도서관의 견학은 현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서가 전문가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업무수행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공하였다(정중기, 2012b, 2015).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록관 견학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된 바 없으며, 아직까지는 견학을 기록관 확장 서비스의 하나로 일부에서 언급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록관은 행정기관의 한 부서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 견학을 시행하는 기록관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행정문서가 소장기록의 중심인 일반 기록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이용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보고 싶어 할 고유의 특성을 가진 대통령기록관을 사례로 하였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은 곧 세종특별시의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라, 기존 견학프로그램의 단점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면담과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백서 등의 출판물 및 웹사이트의 정보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먼저 견학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기록관²⁾들을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들은 대부분 이용자 세분화를 기반으로 견학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었다. 웹사이트를 모두 살펴본 후 그 중에서도 특히 모범사례로 활용할만한 네 곳을 선정하였는데, 먼저 이용자 프로그램이 활발하고 그 소개가 잘 되어 있는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또 기록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를 잘 하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국립 사적지에 설립되어 다른 기록관보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후버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대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운영 중인 존슨 대통령기록관 등을 사례 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의 견학프로그램은 연계되어 견학에 활용되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살펴보니, 각 대통령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콘텐츠를 파악해 보았다. 견학 프로그램 내용들은 각 대통령기록관이 제시하는 웹 사이트 외에도, 미국 국가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국내 기관의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로는

전 대통령의 일생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김대중 도서관과 외교 관련 특수 기록들을 수집하고 소장하고 있는 외교부 외교 사료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견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살펴 보았다. 국내 관련 기관의 견학 프로그램의 조사를 위해서는,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견학 프로그램을 체험해보았으며,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와 환경 및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기관의 견학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지로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미리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직접 만나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기관 견학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견학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타 기록관에서도 견학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록관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2. 견학의 역할과 유형

견학(見學: field trip, tour)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로 보고 학식을 넓힘'(국어대사전, 1994)으로, 문헌정보학 용어사전(2010)에서는 도서관 견학(library tour)에 대해 '새로운 이용자에

2) 미국의 대부분의 대통령기록관은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또는 Presidential Museum and Library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나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과 역할이 유사하므로 미국 대통령기록관으로 지칭함.

게 서비스나 자원의 위치를 소개하기 위하여 도서관 안내자의 도움으로 걸어서 도서관 시설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도서관 투어', '도서관 참관', '도서관 안내' 등의 용어도 사용한다. 박물관의 경우에는 '관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큐레이터가 같이 동행하는 경우 '전시 해설'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전시는 미술품을 한 장소에 모아 전시·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견학과는 비슷하지만 엄밀히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현장 견학'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기록관 견학', '전시실 견학'이다. 주로 기록관이 작은 경우 '전시실 견학'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규모가 큰 기관일 경우나 기록 관리가 집중적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기록관 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의 기록관 경우 'guided tour', 'hands-on program', 'school tour'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 견학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다.

정종기(2012a)는 특히 도서관 견학이 가지는 교육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도서관 견학을 통하여 많은 이용자들은 경험을 쌓고, 안내자의 설명과 해석, 견학 자료 등으로 간접 경험까지 결합할 수 있어, 견학은 직간접적으로 교육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대학 도서관에서 신입생 대상으로 한 견학이 주로 이루어지듯이, 도서관 견학은 도서관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셋째, 도서관 견학은 매체 의존적이면서 매체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견학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기관의

물리적 공간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자료와 견학 안내 자료가 모두 매체이다. 견학은 기술과 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의존성과 매체 지향성이 강화된다. 넷째, 도서관 견학은 안내자의 설명하기와 해석하기의 과정을 동반하는 특성이 있다. 견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명하기와 해석하기의 행위로, 견학에 참여하는 이용자와의 교감과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견학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도서관 견학은 안내자와 견학자간의 상호작용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견학 안내자는 이용자를 직접 경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며, 견학 참가자는 설명과 해석하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상 견학의 경우는 나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사소통을 잘 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견학의 유형을 도보견학(walk-through tour)과 자율견학(self guided tour), 시청각견학(audiovisual tour)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toffle & Bonn, 1973; 김병주, 1982). 도보견학은 이용자들이 사서의 안내로 각 부서를 방문하면서 도서관의 목적, 자료, 제 규정, 내부 구조 등에 대한 구두설명을 듣는다.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고 사서와 학생 간에 친근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견학은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쇄물과 녹음된 안내과정을 담은 카세트와 음성파일을 가지고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각자 스스로 도서관 이용안내를 하는 방법이다. 이 견학은 명료하게 설계된 안내과정이 필수적이며 흥미로운 방법으로 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시청각견학은 학생 자신이 도서관 건물에 실제로 참석치 않아도 되며 단체나 개인에게 슬

라이드,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대 단위 강의실에서 도서관을 안내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지시킬 염려가 없고 반복교육이 가능하나 기술적인 능력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또 가상 도서관 견학(online library tour)이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견학이 시도되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 현장 견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적인 여행으로 방문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활동이다(Krepel & DuVall, 1981). 교육학 분야에서 현장 견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장을 학교 영역 밖으로 확대한 형태이며, 학생들은 학습에서 경험하기 힘든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 행하면서 배우고, 직접조작하고 실제 세계 체험,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고, 학생들 간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Falk & Dierking, 1992).

3. 국내외 견학 프로그램의 사례

3.1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사례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전임 대통령 본인과 그를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기금을 조성하여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여 건설한 후, 재임 시 생산한 기록물과 사유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수집하여(1978년 이전의 경우에는 기증, 그 이후에는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수집) 국가에 그 운영과 관리를 의뢰한다(이상민, 2001).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은 각종 전시나 강연, 연구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볼거리와 배움의 장소를 제공하고 민주적 정치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의 2012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이 중 프로그램 참가자는 견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표 1>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통계 - 각 대통령기록관 이용현황

(단위: 명)

대통령	연구자 방문	서신 문의	프로그램 참가자	전시/박물관 방문자	온라인 방문
후버	415	946	36,215	44,549	321,409
루즈벨트	1,244	2,090	20,457	84,360	370,105
트루먼	716	2,363	44,357	63,579	2,482,610
아이젠하워	1,335	2,711	35,044	202,938	716,333
케네디	1,224	5,150	40,817	208,313	3,019,353
존슨	1,532	3,073	15,464	87,411	1,467,152
닉슨	1,217	1,175	4,143	92,590	1,365,168
포드	658	1,125	22,912	299,189	1,254,300
카터	727	734	20,189	51,746	768,409
레이건	798	369	40,380	380,570	1,746,648
부시41대	687	1,294	124,286	116,770	717,095
클린턴	82	1,320	186,804	312,396	805,903
부시43대	-	702	325	0	912,345

* 출처: NARA (2012). Preserving the Past to Protect the Futur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 11

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기구와 실행기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정책에 관한 것은 NARA의 대통령기록관리국에서 입안되고,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 업무는 대통령기록관에 개별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기록보존과 관리를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기타 행정 및 판매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 원칙과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역사와 소속 기관에 대한 지식·학술 연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시행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거나 전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대통령기록관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이강훈,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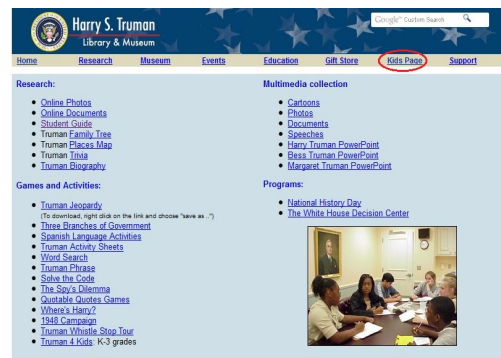
3.1.1 트루먼 대통령기록관(Truman President Museum and Library)³⁾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미주리주(州) 출신의 미국 33대 대통령으로 1944년 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다음해에 루즈벨트가 사망하자 대통령이 되었다.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재임하였다(Doopedia).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은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위치하고 있다.

견학은 사전 예약제로 4주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며, 전시 일정과 가이드 신청 시 요구 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 견학은

기본적으로 15명 이상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가이드를 신청하면, 가이드가 참여하여 해설을 통해 견학을 도와준다. 견학 시간은 약 2시간정도 인데 시설 견학은 1시간 15분정도 진행되며 그 후 선택 사항으로 45분 동안 트루먼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특징은 이용자 세분화를 통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중·고등학생/고등학생 이상 일반인/교사로 나누었다. 우선 학생 그룹을 위한 별도의 Kids Page를 마련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지루하거나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멀티미디어, 퀴즈 형식으로 내용을 재가공 하여 제공한다(〈그림 1〉 참조).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트루먼 재임시기의 중요사건과 업적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 전달 성격의 워크샵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주제는 반드시 트루먼 대통령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지 않고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면 다룬다.



• Return to Truman Library home page

〈그림 1〉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Kids Page

3) Truman President Museum and Library(<http://www.trumanlibrary.org/>)

또한 영어를 듣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내용 파일의 스크립트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 전달을 위해 소장 자료나 소장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보여준다.

3.1.2 케네디 대통령기록관(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⁴⁾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재임한 미국 35대 대통령이며,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州) 브루클라인에서 태어났으며, 1963년 유세지인 텍사스주(州) 댈러스 시에서 자동차 피레이드 중 암살되었다(Doopedia). 케네디 대통령 기록관은 1979년에 건립되었으며,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에 있다. 2012년에는 전체 미국 대통령기록관 중 부시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표 1〉 참조).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는 학생들을 위한 견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비슷한 학년의 이용자의 경우에도 주제를 여러 가지를 두어, 보여주는 중점 내용을 다르게 하여 운영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특징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기록관은 대통령의 지명도도 높지만, 다른 기록관보다 훨씬 많은 주제와 소재를 아우르는 전시로 유명하다.

견학은 크게 ‘그룹방문(Group visit)’, ‘학교방문(School visit)’으로 나뉜다. 그룹방문의 경

우 그룹방문 예약 신청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방문 4주전에 제출해야한다. 이때 요금은 성인은 \$12, 경로자와 대학생 \$10, 청소년(13세~17세) \$9, 어린이는 무료이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며, 견학 시 물품은 들고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학교 방문은 조금 더 세분화 되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분리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의 단체 견학 프로그램은 각각 4개와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간은 주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존 F. 케네디는 누구였는가?(Who was John F. Kennedy?)’, ‘대선운동과 선거(Presidential Campaigns and Elections)’, ‘모두를 위한 권리: 시민권운동 조사(Equal Rights for All: Investigating the Civil Rights Movement)’, ‘자유를 위한 노래: 민권 운동 음악(Singing for Freedom: Music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중학생 프로그램은 ‘60년대의 리더십(Leadership for the 60s)’, ‘존 F. 케네디: 세계의 시민(John F. Kennedy: Citizen of the World)’, ‘대통령 성적표(Report Card for the Presid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참조).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중학생보다는 심화된 과정으로 주로 1960년대의 민권운동과 냉전시대의 모습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이다.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프로그램은 ‘말과 행동: 케네디 취임연설(Words and Deeds: Examining John

4)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http://www.jfklibrary.org/>)

Guided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Groups

Our museum programs for grades 3-8 extend and enrich classroom studies in American history, Civics, and English Language Arts.

Who was John F. Kennedy? (Gr. 3-5)

Students become biographers for the day as they explore John F. Kennedy's early years, his presidency, and the contributions he made to our nation and the world. They analyze historic photographs and documents, view films and television footage, and examine objects in the museum as they gather and record information in our "Biographer's Workbook."



Allow 2 ½ hour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617.514.1649.

Presidential Campaigns and Elections (Gr. 4-5)

Using the 1960 election as a case study, students learn the steps to becom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udents explore objects, photographs, and documents in the museum to discover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1960 election. The last part of the visit includes an interactive game based on the steps to the presidency. A final discussion draws on students' hopes and ideas to guid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low 2 ½ hour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617.514.1649.

Equal Rights for All: Investigating the Civil Rights Movement (Gr. 4-5)

As young historians, students study the civil rights movement through stories, films, photographs and documents. The museum portion of the program focuses on civil rights events during the Kennedy administration. Discussions and activities challenge students to think about fairness, equity and their own role in creating a more just world.

<그림 2>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초등학생 견학 프로그램 소개

F. Kennedy's Inaugural Address)', '시민권 운동: 1960-1963(The Civil Rights Movement: 1960-1963)', '냉전의 가열(The Cold War Heats Up)', '60년대의 시작(Launching into the Sixties)', '초기 60년대의 시민권운동의 미사여구(The Rhetoric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Early Sixties)' 등으로 구성된다.

3.1.3 존슨 대통령기록관(Lyndon Baines Johnson Library and Museum)⁵⁾

존슨 대통령은 1908년 텍사스에서 출생하였다. 존슨은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의 러닝메이트로

나서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국의 36대 대통령이다. 재임 시기는 1963년부터 1964년 재선이 되어 1969년까지이다(Doopedia).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내에 위치한다. 건립을 위해 민간 기금이 모금된 것이 아니라 대학이 건립을 유치하고 주도한 케이스이다(조민지, 2006).

존슨 대통령의 기록 박물관은 10명 이상 60명의 경우 평일에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은 90분 정도 소요된다. 그 외에도 단체 견학이 아닌 셀프 가이드 투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기를 빌려서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 받아 견학을 할 수 있다. 견학 예약은 온라인으로 2주전에 선착순으로 받는다.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당시 존슨 행정부에서 보관한 파일을 사용해 여러 가지 그룹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스파이의 딜레마(The Spy's Dilemma)'를 통해 이용자들은 소련 스파이 역할과 대통령 자문으로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회원이 되어 활동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보는 '대통령의 결정(A Presidential Decisio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 이용자는 존슨 행정부의 일원이 되어 회의 중 베트남 폭격을 확대할지 대한 여부에 대해 자문을 하는 활동을 해본다. 또 '인권의 문제: 의회 입법 구축 결정(A Matter of Civil Rights: A Decision to Construct Legislation for Congress)' 프로그램은 기록관에 있는 기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참가자가 1명에서 8명까지의 역할을 해보는 활동이다.

5) Lyndon Baines Johnson Library and Museum(<http://www.lbjlibrary.org/>)

또한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아카이브즈의 내부(Inside Archiv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에 8일 동안 교사들에게 존슨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을 열람하고 교실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도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대학에 대하여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텍사스 주립대학의 존슨 공공정책대학원을 지원하고 있다.

3.1.4 후버 대통령기록관(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⁶⁾

후버 대통령은 1874년 아이오와주(州) 웨스트브랜치에서 출생하였으며, 1928년 대선에서 당선되어 1929년 3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재임 중 경제 대 공황을 맞이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패배하여 재선에 실패하였다(Doopedia). 후버 대통령기록관은 1962년 공개되었으며, 허버트 후버 국립 사적지(Herbert Hoover National Historic Site)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그가 태어난 오두막집, 그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과 비슷한 대장간, 후버 가족이 믿었던 웨이커교의 예배당, 허버트 대통령기록관, 박물관 등이 있다.

견학 프로그램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학교 단체 견학은 최대 3시간 45분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다른 곳에 비하여 후버 대통령 기록관의 견학 시간이 긴 이유는 기록관뿐만 아니라 사적지도 같이 둘러보기 때문이다. 즉 견학 코스는 1시간은 대통령기록관을 둘러보고 1시간은 허버트 후버 사적지를 견학하며, 영상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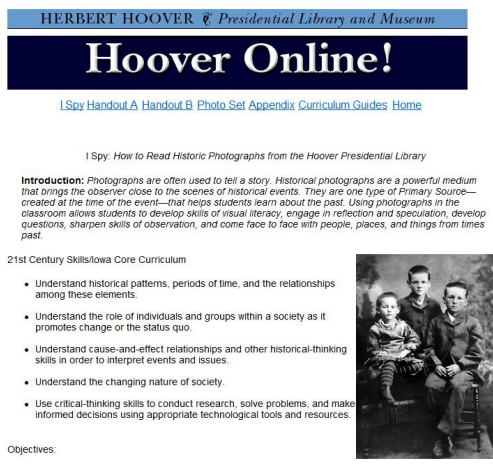
묘지방문과 점심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크로스컨트리 모험(Lou Henry Hoover's Cross-Country Adventure)이라는 게임을 통하여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있고, 후버의 연대기(A Chronology of Herbert Hoover)는 후버 대통령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업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아이오와에서의 어린 시절(A Boyhood In Iowa)은 후버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를 편지 발췌를 통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역사투어(Living History Tour)는 1879년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의 눈으로 역사적 현장을 답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하지만 모든 활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생략도 가능하다. 학교 단체 견학의 경우 학생과 교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0명당 한명의 보호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일반 성인 단체 견학인 경우는 전체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대상을 학생, 교사, 공통으로 나눈다. 학생 대상의 경우는 중·고등학교 생용이 많다. 프로그램 중에 '후버 생애 스케치(A Biographical Sketch of Herbert Hoover)', '영부인 생애 스케치(A Biographical Sketch of Lou Henry Hoover)'는 후버 대통령과 연부인의 생애에 관하여 보여주며, '나는 스파이: 후버 기록관에서 역사적인 사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I Spy: How to Read Historic Photographics from the Hoover Library)'는 사진을 통하여 역사적 사진의 기간, 패턴,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그림 3> 참조). 그리고 '정치만화를 이용한

6) 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http://hoover.archives.gov/>)

역사적 사건 이해하기(Using Political Cartoons to Understand Historical Events)'는 고학년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만화를 그리면서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용 프로그램으로는 후버의 삶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봉사학습을 일깨워 주는 '후버의 생애(Herbert Hoover: A Life of Service)'가 있다.



〈그림 3〉 후버 대통령기록관 | Spy 프로그램 소개

3.2 국내 관련 기관의 사례

3.2.1 김대중 도서관⁷⁾

우리나라 15대 전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는 김대중 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상금을 기부한 것을 기반으로 2003년 11월에 설립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증한 반세기애 걸친 국내 정치 관련 자료, 국내외에서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활동 자

료, 대통령 재임 기 국정수행 관련 자료, 국제 외교 자료 등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대중 도서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전, 재임 기, 재임 이후, 노벨평화상 수상 관련 자료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와 그에 관련된 현대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

김대중 도서관의 견학 프로그램은 개인견학은 예약 없이 관람을 할 수 있으나, 10인 이상의 단체 견학인 경우 방문 2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고, 1인 이상의 인솔자가 있어야 한다. 1회 예약인원은 30명이며, 30명 이상일 경우는 회차 별로 나누어 예약해야 한다. 단체 견학은 전시실 도슨트에 의해 이루어지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전시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전문 안내인의 해설을 통한 전시실 관람으로, 전시실 사료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전시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시예약제로 매 달 운영 횟수가 다르며, 보통 한 달에 5~10회 정도 진행된다. 또한 방학 동안에는 특강 형식으로 '청소년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대중 도서관은 이용자세분화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용자 연령에 맞춰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과 사료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한다. 전시실 도슨트 프로그램은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청소년 역사교육 프로그램'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두 프로그램 둘 다 전시실 관람을 중점으로 이루어진다. 견학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도서관 안내 유인물을 주고, 청소년 역사

7) 김대중도서관(<http://www.kdlibrary.org/>)

교육프로그램은 빈칸 채우기가 제공이 된다.

그 외에도 셀프 견학을 위한 PDA 가이드가 제공된다. 이는 전시실을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관람을 도와주는 전시 가이드이다. 이는 도서관 소개, 전시실별 관람 안내 콘텐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전시물, 목록정보 등 다양한 기획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실물 전시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정보를 음성과 콘텐츠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PDA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3.2.2 외교부 외교 사료관⁸⁾

외교부 외교 사료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교 사료의 과학적·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수 기록관으로 2006년에 건립되었다. 외교 사료관에는 외교사 전시실과 수장고, 외교 문서 열람실, 문서 인수실, 문서 소독 및 탈산 설비실 등이 있다. 외교사 전시실은 1876년 개항 후 지금까지의 주요 외교 문헌과 기념사진, 기념물 등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외교 문서 열람실은 공개문서의 마이크로필름과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외교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견학은 단체 견학인 경우에만 견학 담당자가 동행하게 된다. 외교사 전시실의 경우는 관람을 원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누구나 갈 수 있으며 단체 견학인 경우에만 외교 사료관 홈페이지(diplomaticarchives.mofa.go.kr)에서 사전에 예약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단체 견학에 같이 참여하고 싶

은 경우 단체견학의 달력 게시판에 마감된 단체 견학의 예약 정보를 확인 한 후 개인견학 신청이라는 게시판에 신청을 하면 같이 동행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체 견학은 초등학교 이상으로 최소 인원이 15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8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일정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2번씩 10번의 견학을 운영하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견학 프로그램은 맨 처음 외교 사료관에 관한 소개를 하며 외교부 홍보 영상물을 상영한다. 그 후에 외교 사료관 체험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자들은 외교관 임용장을 만들어 보고 수여하며 부임자 선서를 한다. 다음으로 외교사 전시실을 관람하는데, 이용자들은 체험 활동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견학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린 초·중·고등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외교문서 열람실로 안내된다.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외교 문서 열람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용자들이 실제로 문서를 열람해 보는 체험을 해보도록 한다.

3.2.3 국립중앙도서관⁹⁾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해방 직후에 개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립도서관이다. 국립도서관으로서 대표적인 사업은 전국 도서관정책 개발과 전국 사서교육, 도서 및 전국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작업, 다양한 이용자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도서관 협력망의 중앙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사업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8) 외교부 외교사료관(<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9)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의 견학 대상은 크게는 기관, 단체, 개인으로 나누고, 작게는 도서관 직원, 초·중·고등학생, 일반인(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외국인으로 나눈다. 견학 프로그램은 주 5일 12회 운영하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 번에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최소 5명에서 20명이다. 예약 방법은 온라인 예약이며, 견학 1주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견학 내용은 이용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 및 연혁을 설명하고, 도서관 이용방법 설명(이용증 발급 방법, 야간 도서관 이용 등)하고 홍보 동영상 시청한다. 그 다음에 본관 시설(고전운영실과 지도 자료실, 인문·사회·자연과학실 및 정보봉사실)을 관람하고, 디지털 도서관 시설(디지털열람실, 복합상영관, 영상스튜디오 및 디지털도서관라운지)을 관람한다.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약 4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된다(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¹⁰⁾

대상별 견학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른데, 초등학교·중학생 견학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전반 및 공공도서관과의 차이점을 안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쉬운 용어 사용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견학 중간에 퀴즈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중도가 낮은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의 관심을 환기하며 진행하는데, 40-50분 정도 소요된다. 맨 마지막에 퀴즈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 내용은 모든 이용자 견학에 해당되나, 이용자별로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인 견학(고등학생 이상)일 경우 국립

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소요시간은 60분이다. 반면 사서견학의 경우 60분 정도 진행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보다는 질의응답을 통해 도서관의 업무 및 현황을 심도 있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으로 둔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견학의 경우 소요시간이 60분에서 90분이며, 견학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수행 중인 업무를 통해 대표 도서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4. 대통령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 방안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에 개관한 서울기록관(구 나라기록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이며, 2006년에 8월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리 팀이 설치된 후, 같은 해 국가기록원 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팀으로 신설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7년 4월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해 11월에 대통령기록관 직제를 신설하고 설립되었다(2부 1센터 7팀).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세종특별시에 설립될 신축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운영의 핵심기록인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한 장소로, 대통령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 구현과 흥미로운 내·외부 전시 공간

10) 견학안내(http://nl.go.kr/nl/service/tour/tour_guide.jsp)

및 열람시설을 제공하는 기록관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공간을 건립 방향으로 하고 구축된다(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¹¹⁾

4.1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현황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견학은 개인이나 단체 등 관람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라도 견학이 가능하지만, 시설 견학의 경우는 5인 이상만 가능하며 유치원 단체는 상설전시관 관람만 가능하다. 견학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요일~금요일)에 운영하며, 오전 10시, 오후 2시 1일 2회 운영한다. 시설 견학에 대한 사전 예약은 방문 일주일 전에 하는 원칙으로 하며, 견학 신청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방문 정보를 기입하여 견학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사전에 방문자 명단을 제시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위치한 국가 기록원 나라기록관은 나급 보안시설이며,¹²⁾ 견학 장소도 일반인이 엄격히 제한된 곳으로 사전

에 방문자 정보를 주어야 한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견학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맞춤형 견학 코스로 변경할 수 있다.

견학 시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이다. 주의사항으로는 건물 출입을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견학 시 기록물에 훼손을 줄 수 있는 음식물이나 도구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가능하다.

견학 코스는 수준별로 3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기본코스(초등학생 어린이 대상) 실무코스(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대상), 전문가 코스(기록 관리전문가,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전공과 대학생 등 대상)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시설 견학의 코스는 <표 2>와 같다.

전문가 코스 견학 프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20분간 대통령기록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마이크로필름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은 종이 기록물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에는 시청각실

<표 2> 대통령기록관의 대상별 견학 코스

코스	대 상	내 용	소 요
기본코스	초등학생	교육장(동영상 시청) → 시청각실 → 일반문서고 → 대통령기록 전시관 → 국가기록전시관	60분 소요
실무코스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교육장(동영상 시청) → 시청각실 → 복원실 → 일반문서고 → 대통령기록전시관 → 국가기록 전시관	90분 소요
전문가 코스	기록관리전문가, 기관기록관리 담당자, 전공과대학생 등	교육장(동영상 시청) → 마이크로 필름실 → 스캐닝실 → 시청각실 → 복원실 → 제본실 → 일반문서고 → 인수하역장 → 탈산·소독·복제실 → 대통령기록전시관 → 국가기록 전시관	120분 소요

* 출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견학코스 소개

11) 대통령기록관>신청사 개요>건립방향 및 근거(<http://www.pa.go.kr/portal/introduce/sejong/sejong03.do>)
 12)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위해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 경제와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행정관서·방송국·발전소·공항·군시설·과학연구소·교통시설·상수원 등 경비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 훈령 28호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나 방호는 시설주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경찰이나 군은 정기적으로 경비·방호상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구)나라 기록관/대통령기록관 견학 현황 ('08~'14.8월까지)

(단위: 명)

연도	유치부	초·중·고	대학(원)생	일반	공무원	외국인	합계
2008	745	420	299	3,160	54	150	4,828
2009	1,003	3,435	521	1,901	479	181	7,520
2010	2,869	3,153	686	1,245	817	302	9,072
2011	2,951	3,300	745	2,133	1,236	180	10,545
2012	3,719	3,952	631	3,050	577	168	12,097
2013	2,627	3,819	750	4,880	972	129	13,177
2014	1,138	2,746	660	3,267	629	58	8,498

* 출처: 국가기록원(2013) 나라기록관 기록관리 시설 견학 현황

로 이동하는데, 이곳은 스튜디오 및 전시실, 열화필름 디지털 변환실, 보존처리실, 사진필름 복원실 등이 있으며, 시청각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장비를 갖추고 오래된 사진과 필름을 원상태로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보관한다. 그 다음은 복원실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실제로 문서, 도면, 그림 등 훼손된 종이 기록물을 복원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일반 문서고로 이동하여 문서 기록물을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고의 시설을 설명하고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 인수하역장을 둘러, 탈산·소독·복제실로 이동하게 된다. 이곳은 종이문서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탈산처리를 하고 해충과 미생물, 곰팡이 없애기 위해 소독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탈산실에서 나오면 복제실이 있는데 이곳은 중요기록물의 전시 등 활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과 유사하게 제작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견본을 볼 수 있다. 기록관리 시설 견학 후 대통령 기록전시관과 국가기록 전시관 관람을 끝으로 견학을 마치게 된다.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따로 견학 현황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지만, 같은 건물에 있으며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구)나라 기록관의 견학 이용자 현황이 〈표 3〉과 같다. 이 현황을 보면 매년 견학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년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기록 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4.2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사례와 한계

4.2.1 견학,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다양한 견학 및 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소의 계층 초청 견학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육원 아동, 저소득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할 때마다 약 30명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각 128명과 13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는 대통령 기

록학습, 인류기록역사 특강 및 목판인쇄판 제작, 서고·시청각실 및 전시관 관람 등이 포함되었다(국가기록백서, 2012, 2013).

다음으로, 초·중학교 기록문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록문화 전통과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은 학기 중에 실시되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누계를 보면, 총 90개 학교에서 6,563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기록으로 만나는 대통령 특강 및 세계기록유산 특강, 서고 및 복원실 견학, 전시관 관람, 기록유산 입체 북 제작 등이 포함된다(국가기록백서, 2012, 2013).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매년 동·하계 방학 중에 개최되는데,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가 함께 과거와 현재의 기록문화를 경험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35회에 2,667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2012년 겨울에는 왕의 일기 일성록 특강, 우리가족 액자형 기록달력 제작, 시설 견학 등이 포함되었으며, 여름에는 직지심체요절 특강, 옛 책 및 인쇄판(목판) 제작, 시설 견학 등이 포함되었다. 또 2013년 겨울에는 훈민정음 특강, 한글 디자인 가방 제작 및 서고 등 시설견학 등이, 여름에는 난중일기 특강, 전통 부채 제작 및 서고 등 시설견학 등이 포함되었다(국가기록백서, 2012, 2013).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도 평일에 진행해 오던 기록 체험 프로그램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었다. 토요 기록문화 학교는 대통령 기록관과 나라기록관이 협력하여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4회에 걸쳐 161명이 참여하였고, 2013년에는 6회에 걸쳐 189명이 참여하였다. 세계기록유산 특강 및 죽간 만들기, 서고 및 전시관 관람으로 이루어졌다(국가기록백서, 2013).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또한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중심의 기록관리 견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역사 등 관련 학과 대학생 및 기록물에 관심 있는 일반 성인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록물관리법 특강 및 기록관리 시설 견학 등이 포함되었다. 2013년에는 국민대 역사학과 학생들과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국가유공자 등 2회에 걸쳐 76명이 참여하였다(국가기록백서, 2013).

4.2.2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의 한계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은 일반 견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로 기관의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계층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세분화가 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대상이 필요로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견학 프로그램 중 처음 소개된 문화 소

외 계층 초청 견학 프로그램은 대상이 결혼 이민자 여성 등 다문화 가정이며, 한부모 가정 자녀·저소득 가정 자녀 프로그램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다.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내용은 기록관소개 후, 시청각실, 복원실 서고 등을 견학하고 한글 디자인 가방을 제작하고 대통령 기록보존 서고와 전시관을 관람하는 것이었고,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 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대통령기록학습, 기록 역사 특강, 목판인쇄판 제작, 서고·시청각실 및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문화적 혜택이 적은 소외된 계층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특성이 전혀 다른 이용자 군에 대해 적절하게 다른 내용으로 견학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소외 계층이라도 다문화 가정일 경우 한국어의 능력이나 이해도 및 관심사 등에 있어서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를 터인데, 비슷한 내용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군의 차별화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한글 디자인 가방을 만드는 체험보다는 대통령기록관만이 지니는 고유의 기능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체험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알맞을 것이다.

또한 그 외에 시설 견학 프로그램도 서로 다른 배경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코스를 설계하였으나, 사실 차이점은 방문하는 시설이 더 적고 많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내용면에서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예를 들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그 대상에 적절한 내용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대통령기록관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로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아쉬웠다.

둘째, 견학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되는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프로그램이 매우 정적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상설 전시와 기획전시 혹은 특별 전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상설전시는 반영구적으로, 이를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 재임시기의 시대상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을 보여주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한다(이강훈, 2011).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설전시도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한곳에 모아서 개괄적인 부분만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 흐름과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전시가 미흡하다. 이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성남에 위치한 서울기록관에 같이 상주하여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전시가 주로 대통령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견학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매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시에 건립 되는 신청사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각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한 전시와 대통령 주요 정책에 대한 전시, 대통령의 생애 등을 반영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나 범주가 넓지 못하다. 앞에 제시된 현재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면, 교육프로그램은 단기간 체험학습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또 교

육 프로그램의 대상자 역시 주로 초등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저학년과 고학년조차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들의 경우 프로그램이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 프로그램의 경우도 다양하여 학생들이 흥미로운 주제나 자신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초등학생·중학생 프로그램으로 인권과 정치와 역사 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단순한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평생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학습요구와 문화의식을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3 대통령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4.3.1 세분화된 이용자 군에 적절한 내용 구성

먼저 대통령기록관의 견학프로그램은 이용자 세분화를 정밀하게 하고, 그들 이용자 군의 특징과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 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견학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유치부, 초·중·고 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공무원, 외국인으로 나누고 있다. 이 이용자 군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각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된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생 이용자 군을 예를 들면, 학교 단위와 저학년과 고학년 별로 수업 내용들과 연계하면 관심 있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

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학생 이용자 군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콘텐츠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문가의 경우, 기록 관리와 관련한 학과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교수진 그리고 교사들과 같이 관련 학문분야 연구자가 있고, 또 언론 종사자 등이 있을 수 있다. 교사의 경우 기록을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과 자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관련 학문분야 연구자들이나 언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대통령 기록 전반에 대한 소개와 기록의 검색 및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교사들을 학생 외에 별도 이용자 군으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 종사자로, 특수한 기록관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오는 관계자나 기록 관리를 하는 일반 기업 혹은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요구 중심으로 맞추어서 견학을 진행하는 방식이 알맞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는 또 외국인 방문자들도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부분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 세분화와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다.

4.3.2 역동적인 전시의 제공

전시는 견학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반이 되므로 견학프로그램 구성에 매우 중요하다. 전시는 전시 대상과 주제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공간 연출과 이야기가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시 자료가 반영하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적인 전시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상호소통이 가능한 전시가 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특별 전시를 도입하도록 하며, 온라인 전시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는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큰 그림으로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적 흐름이나 다양한 이용자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 대통령기록관이 서울기록관에 같이 있으므로, 공간이 협소하여 상설전시만 가능하고, 그 공간 안에 모든 대통령을 다루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구성이 미흡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곧 이전하게 될 세종특별시의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현재 전시관보다 몇 배나 넓은 공간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전시가 시설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 잘 구성되리라 생각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잘 구성하여 교육과 연계하고 견학 프로그램 구성과 적절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전시는 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라 전시 자료가 반영하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이어주는 공간 연출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가 있다. 스토리텔링 기법은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기법이다(김영도, 한태우, 2009). 전시에 스토리텔링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야기 흐름에 맞게 구성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는 앞의 사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링컨 대통령 기록관에 도입되었다. 링컨대통령기록관은 링컨의 일생을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전시를 도입하고 이를 전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¹³⁾ 따라서 전시 기법은 이용자와 상호소통이 되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시가 가능하게 된다면 전시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이용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전시는 주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은 상설 전시로 한 번 전시를 연출하면 평균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상설 전시로 모든 대통령기록관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를 주기적으로 연출하여 이용자에게 흥미 유발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래야 견학 프로그램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용자들이 재방문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다른 내용들이 제시될 수 있어 다양한 학습 효과 및 기록 활용에 대한 동기 유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 내용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이

13) 링컨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www.alplm.org/library/library.html>)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전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기록관의 기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기록관에 대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이용자 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기록관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3.3 견학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학생들과 일반인 모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견학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또 평생교육의 목표를 두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견학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은 교육 전문가를 확보하여 각 이용자 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대부분 학교방문(school visi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의미를 알려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친숙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학생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학교별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학년 별로 나누어 수준별로 운영하며, 그 방식도 단순한 조사해보는 것부터 토론해보거나 대통령 역할이 되어 임기 시에 있었던 일을

결정 해보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정책이나 공공 업무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 주관의 학회나 세미나를 주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의 경우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견학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 운영되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하다. 견학에서 시설 견학만 하고 만다면 견학 후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단지 무슨 시설이 있었으며, 여러 곳을 둘러본 기억만이 남게 될 것이다. 견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면 이용자들은 더 기억에 남고 배워가는 것이 많은 경험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 경우는 체험을 통한 방법이라고 한다.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견학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다양한 이용자 군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체험 프로그램은 역사적 지식과 정보와 대통령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끌어내도록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 프로그램은 대통령기록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면 잠재적인 이용자들의 홍보와 관심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4.3.4 견학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전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는 견학을 포함하여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현 서울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기록관리 전문 인력이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의 전문가들로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숫자가 적다보니, 견학 프로그램도 서울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전시·견학 프로그램 담당자 한명이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프로그램 위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새로운 세종특별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전시실의 확장 등으로 인력의 구성 면에 변화가 생기겠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견학 프로그램 등의 전문가 혹은 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가기록청 대통령기록관리국과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이에도 인사 교류가 가능하나,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들은 대부분 특정 대통령기록관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함으로써 해당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아키비스트들은 확보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에 관하여 아키비스트와 박물관 큐레이터가 상호 협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업무와 직무에 따라 개인별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각자가 전문가라는 인식이 매우 높다. 기록관이라고 하여 아키비스트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전문가, 큐레이터 등이 각각 존재 하며 교육과 전시에 대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봉사자와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전문성도 뛰어

나지만, 해당 대통령기록관과 소장 기록물과 본인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관도 기록전문가가 기록관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순환적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담당 업무가 자주 바뀐다. 그리고 따로 전시를 위한 큐레이터나 교육을 전문적 배경을 가진 담당자가 하기 보다는 순환직으로 돌아가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를 모두 파악하기 위한 순환직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통령기록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기록관의 경우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특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처럼 견학에 관한 자원봉사자나 인턴십을 제도를 받아들여 한명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일을 분산시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도입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기록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에 이용자들에게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은 본인이 필요한 정보가, 혹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기록 속에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거나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와 역사적 증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록관들은 찾아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기록의 가치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러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기록관에 대한 견학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시를 관람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으로 콘텐츠가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볼거리가 있는 의미 있는 문화기관으로 인지될 수도 있을 것이며,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특성이 특별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방문해 볼 의미 있는 기관으로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내용이 좋은 견학 프로그램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대통령기록관과 국내 견학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의 견학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통령기록관 견학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대통령기록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록관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들을 살펴보니,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에게 대한 세분화를 통하여 각 이용자 군의 특성에 맞춘 내용으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시도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운영하여 역사의 흐름과 문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견학에 활용하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도 학년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제공하며, 또 일반인과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그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 대통령기록관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견학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4가지로 제안하였다. 즉 이용자 군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학년 단위를 고려하는 등, 좀 더 정밀하게 이용자들을 세분화하고 각 이용자 군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시 측면에서는 좀 더 역동적인 전시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는데, 즉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구성하고 전시 방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각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흐름을 나타내어 전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견학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견학이 시설 견학에서 끝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운영 방안에 관련하여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서비스 부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와 인턴십을 이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채워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로 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우선 이용자 군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한 콘텐츠들을 미리 준비하고, 견학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기록관 견학이 단순한 시설 견학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방문자들의 기억에 남는 견학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기록관은 하나의 대표 관광지 혹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

적인 복합 문화 종합센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통령기록관이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에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면, 아직 견학 프로그램이 미흡한 기록관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으며 사례 연구가 포괄적이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으로 기록관 견학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시한 면에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록관들이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견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보다 더 확장되고 이용자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12). 국가기록백서.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3). 국가기록백서.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4). 나라기록관 기록관리 시설 견학 현황. 성남: 국가기록원.
- 김병주 (198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에 관한 소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9, 33-61.
- 김영도, 한태우 (2009).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전시 연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3(3), 46-53.
- 김정은 (2012). 관람객의 효과적인 박물관 경험을 위한 박물관 오리엔테이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설양환, 임병로 (2001). 박물관 현장 견학 프로그램: 미국어린이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9(4), 231-254.
- 유지선 (2008). 이용자 세분화의 기록 서비스 전략.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이강훈 (2011). 한국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미국 대통령기록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기록학.
- 이상민 (2001).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 방향: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사례와 교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31-56.
- 이영숙 (2007).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73-94.
- 이희승 편저 (1994). 국어대사전. 제3판. 서울: 민중서림.
- 정중기 (2012a). 도서관 교육방법으로서 도서관 견학의 교육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291-312.
- 정중기 (2012b).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이 예비사서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181-197.

- 정중기 (2015). 도서관 견학이 예비사서의 사서 핵심능력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79-296.
- 조민지 (2006).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57-184.
- 최상기 (2009). 대학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187-207.
- 최석현, 박현숙, 김명훈, 전태일 (2013).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7-33.
- 한국도서관협회 (2010). 개정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8).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Falk, J. H. & Dierking, L. D. (1992). The museum experience. Washington, D.C.: Howells House. (재인용 설양환, 임병로 (2001)).
- Krepel, W. J. & DuVall, C. R. (1981). Field Trips: A Guide for Planning and Conducting Educational Experiences. Analysis and Action Series. West Haven, CN: NEA Distribution Center. (재인용 설양환, 임병로 (2001)).
- Oling, L. & Mach, M. (2002). Tour trends in academic ARL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3(1), 13-23.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2). Preserving the Past to Protect the Futur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http://www.archives.gov/about/plans-reports/performance-accountability/2012/par-complete.pdf>
- Sinclair, J. M. (2012). The interactive archives: social media and outreac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nnipeg).
- Stoffle, C. J. & Bonn, G. (1973). An inventory of library orientation and instruction methods. RQ, 129-133.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 김대중도서관(<http://www.kdjlibrary.org/>)
-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 링컨 대통령기록관(<http://www.alplm.org/>)
-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http://www.archives.gov/>)
- 외교부 외교사료관(<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 존슨 대통령 기록박물관(<http://www.lbjlibrary.org/>)

트루먼 대통령 기록박물관(<http://www.trumanlibrary.org/>)

케네디 대통령 기록박물관(<http://www.jfklibrary.org/>)

후버 대통령 기록박물관(<http://hoover.archives.gov/>)

Doopedia(두산 온라인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ang-Ki (2009). A Study on the Outreach Service at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3), 187-207.
- Choi, Seok-Hyun, Park, Hyun-Suk, Kim, Myoung-Hun, Jeon, Tae-Il. (2013). An Analysis of the Effect on Using Digital Exhibition of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7-33.
- Jo, Min-Ji (2006). A Case Study on the Service Programs at the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157-184.
- Jung, Jong-Kee (2012a). A Study of the Pedagogical Foundations on the 'Library Tour' as a Library Use Education Metho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291-312.
- Jung, Jong-Kee (2012b). The Impact of the Library Tour Program on the Pre-librarians' Affective Domai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181-197.
- Jung, Jong-Kee (2015). The Impact of the Library Tour for Pre-librarians on the Importance Perception of the Librarian Core Competency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279-296.
- Kim, Byung Ju (1982). Small Paper on Academic Library's Use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9, 33-61.
- Kim, Jung-Eun (2012). A Study on Analysis of a Museum Orientation for Effective Museum Experienc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 Kim, Young-Do, Han, Tae-Woo (2009). The Exhibition Producing Based on the Storytelling Concept.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3(3), 46-53.
-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1998). *Art Big Dictionary*.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Hee-Seung (1994). Korean Big Dictionary. 3rd ed. Seoul: Minjungseorim.
- Lee, Sang Min (2001). How to Set up and Implement a Presidential Archives System in Korea?: Examples and US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 31-56.
- Lee, Young-Sook (2007).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73-94.
- Lee, Kang-Hoon (2011). A Study on Servic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Method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Focused on Comparison with Presidential Library in USA.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2).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ite Paper 2012.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3).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ite Paper 2013.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4). Nara Repository Archives Managment Facilities Tour Status. Sun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 Sol, Yang Hwan & Lim, Byung Ro (2001). A Museum Field Trip Program: A Case Sudy of a Children's Museum in the U.S.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4), 231-254.
- Yu, Ji Seon (2008). A Strategy for Archives Service in User Segmentatio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